

Why We Baptize in Jesus' Name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물침례에 대한 주제는 오랫동안 큰 논쟁거리로 여겨졌고 의심할 여지 없이 과거와 현재 교회의 많은 지도자에 의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첫째로 물침례의 중요성 또는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 봅시다.

물침례의 중요성

기독교의 물침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의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물침례에 대해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으라”(사도행전 2:38) 고 말하며,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도록 명령을 함으로써(사도행전 2:38; 10:48)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 우리는 물침례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성 두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정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그 정하신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든지 않든 간에 그 분이 명령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러한 법을 지킴으로써 이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걸으셨는데, 비록 그 분 자신이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태복음 3:13-16)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 안에 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침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합니다”(베드로전서 3:21)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7:30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침례의 양식

성경에 의하면, 정확한 침례의 양식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마태복음 3:16).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사도행전 8:38).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로마서 6:4). 시신을 땅 위에 놓음으로써 그리고 적은 양의 흙을 그 위에 뿌림으로써 장사하지 않으며 그것을 완전히 덮음으로써 장사합니다. 세계 백과사전 (World Book Encyclopedia)에 의하면 “초기(초대교회)에 모든 세례(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1권 651페이지). 그리고 카톨릭 사전(Catholic Encyclopedia)는 “초기(초대교회)에 시냇물들, 연못들, 그리고 침례 통들에서 물에 잠김으로써 모두가 세례(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3권 365-66페이지) 카톨릭교회가 유아세례를 제정한 후에는 침례가 불편하게 되어 양식이 바뀌었습니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제 11판 제 3권 365-66을 보세요).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시켜 주며 세례(침례)는 우리를 그분의 장사되심과 연합시켜 줍니다. 물침례의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를 그 분의 부활과 연합시켜 줍니다.

침례의 식문

예수님께서 그 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19). 그 분은 그들에게 이러한 단어들 자체를 세례(침례)의 형식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은 “그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단수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바로 세례(침례)의 명령에 대한 주요 요점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타이틀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것이 아니며, 여기에 설명된 구원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 있는 역할들 안에 드러난 바로 그 이름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마태복음 1:21) 지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그리고 “성령은 위로자이시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요한복음 5:43; 14:2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로새서 2:9).

누가복음 24:45-47절은 그 분의 승천 바로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력을 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해력이 열려야 했던 것이 필요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력이 열려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7절은 예수님께서 그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그의 이해력이 열렸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들은 후에, 며칠이 지나 그는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오순절날에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림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사도행전 2:38).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침례)를 받으며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41)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러한 침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 몇 년 후 고넬료의 집으로 가 봅시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찢렸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사도행전 2:37). 이는 마태복음 28:19절을 기록했던 제자들

포함한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는 열 한 사도와 같이 일어났는데(사도행전 2:14), 마태가 거기에 있었으나 우리는 마태가 베드로를 바로잡았다는 어떤 말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주님을 거역했다면 분명 소리를 내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해했고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사도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요한복음 17:6).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마리아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침례)를 받으니,(사도행전 8:5, 12,16).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세례(침례)를 주었는지를 봅시다. 오순절날 여러 해 후에 그가 에베소서에서 가서 약간의 세례(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합니다. 그 때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침례)를 베풀며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 제자들이 세례(침례)를 받았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리디아와 그녀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에게 세례(침례)를 줄 때에 이러한 세례(침례)의 식문과 양식(형태)을 바꾸었다고 믿지 않습니다(사도행전 16:14-15). 빌립보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대답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침례)를 받은 후”(사도행전 16:30-33). 우리는 바울이 그가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똑 같은 양식(형태)과 식문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게 세례(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19; 누가복음 24:47절에서 마지막 지상 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의 복음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삶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11-12).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많은 서신서들을 교회에 썼습니다. 이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비밀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에베소서 3:5)에서와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린도전서14:37).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7)고 썼습니다. 물세례(침례)는 말(식문)과

행동(직접 침례를 받는)의 두 가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명령을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에베소서 2:20). 사도들은 예수 이름의 세례(침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들을 사용해 세례(침례)를 준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은 마태복음 28:19절의 주님의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라디아서 1:8).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를 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8:1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 사도행전 2:38절의 베드로의 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부으심 아래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 하나였고,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말을 불신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침례의 방식과 문구가 바뀌었다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See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p. 241-헤스TINGS 성경사전 제 1권 241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 또는 사람들의 전통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욱더 중요합니까?